

게시판



불교환경연대 회원의 밤 불교환경연대는 12월 8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2005 불교환경연대 회원의 밤'을 개최한다(사진). 이 자리에서는 불교환경연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02)720-1654

찬불원드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원주구공사는 찬불 원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 관악기 전공자 혹은 드럼 전기타, 베이스, 피아노 등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 환영. (033)732-4800

지공회, 해외 자원봉사 지구촌 공생회는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현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장기 파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455-9596

가족송년잔치 서울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7일 오후 2시 복지관 내에서 가족송년잔치를 개최한다. 2006년 달력만들기, 카트라이더 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02)2282-1100

어르신 도우미 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악활동과 발마사지, 기공체조,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365-3677

어르신 작품 전시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어르신들의 서예, 생활원에 작품전시회를 12월 14-16일 어린이대공원역 어린이 미술마당에서 개최한다. (02)466-6242

20면 상식 퍼즐 정답

다	세	포	동	물					
라					고	독	원		
니	코	틴			고				
	스		절	차	탁	마			
	모					님			
	스	퀴	시						
			구	품	연	지			



사찰에서 진행되는 겨울수련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사진은 대학생들이 수련회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공부 열기로 추위 녹여봐!

겨울산사수련회 ·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풍성

추운 겨울을 마음공부 열기로 이겨내 보는 것은 어떨까? 12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사찰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겨울수련회와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찰들은 2006년 병술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방학에 들어가는 초·중·고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은 법주사는 12월 30일부터 2006년 1월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겨울 수련회를 진행한다. 1월 2-4일 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수련회에서는 각종 불교문화체험은 물론 눈썰매를 비롯한 겨울놀이가 펼쳐지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1월 6-8일 계속되는 3차 수련회에서는 부처님 성도제일(1월 7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 26일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 4차례의 수련회를 실시하는 합천 해인사는 참선과 염불 수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수련회 도중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주는 자자(自恣)가 눈에 띈다.

해인사는 참가 신청자 중 신청서를 진지

하고 솔직하게 작성했는지의 여부와 정신적 신체적으로 겨울수련회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 충분한가를 심사해 참가여부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매주 주말 '선무도 주말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경주 골굴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청소년 화랑 수련회'를 개최한다.

선요가를 비롯해 참선, 불교한문교육,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원어인 교사의 영어회화 지도 등으로 꾸며지는 수련회 참여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다.

이외에도 평창 월정사는 12월 15일까지 제7기 단기출가학교(1월 5일-2월 3일) 동참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 수덕사, 공주 마곡사, 김제 금산사, 공주 갑사 등은 2006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12월 31-1월 1일 이를 진행한다.

또 김천 직지사, 해남 대흥사, 화성 신흥사, 부안 내소사, 해남 미황사 등은 주말 템플스테이와 수련회시 운영한다. 성주 도솔암을 비롯한 전국의 사찰들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겨울불교학교를 연다. 문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02)2011-1972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사찰	날짜	주요 프로그램	문의
합천 해인사	1차: 12월 26-30일 2차: 1월 8-11일 3차: 1월 12-15일 4차: 1월 16-20일	참선, 자자 등	055-934-3110
보은 법주사	1차: 12월 30일-1월 1일 2차: 1월 2-4일 3차: 1월 6-8일	불교문화체험 성도제일 관련 강좌	043-543-3615
경주 골굴사	12월 ~ 2월(수시모임)	선무도, 한문교육, 원어인 영어회화 강좌	054-745-0246
김천 직지사	1월 9-14일	어린이 대상	054-436-6084
해남 대흥사	1월초부터 3차례 실시	일반인 대상	061-534-5502
공주 마곡사	12월 매주 주말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새해맞이 템플스테이(12월 31-1월 1일)	041-841-6221
화성 신흥사	1월 중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대상	031-357-3916
성주 도솔암	12월 31일-1월 2일	겨울불교학교 (발우공양, 불교전래놀이 등)	054-931-0175
공주 갑사			041-857-8981
김제 금산사			063-548-1390
예산 수덕사			041-337-6565
양양 낙산사			033-672-2447

*해남 미황사, 부안 내소사, 경주 기림사 등은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연쇄살인 추적하는 투캡스... 미궁에 빠지다

6월의 일기 감독: 임경수 출연: 신은경, 문정혁 장르: 스릴러 상영시간: 105분 등급: 15세 이상

영화 '6월의 일기'는 여자 형사를 전면배치해 전혀 다른 '투캡스'를 만들어 냈다. 또 미리 쓰여진 일기를 통해 예고된 살인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교묘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 관객들에게 낮은 공감증을 유발한다.

타고난 형사기질로 오로지 범인검거에 청춘을 바친 강력계 형사 추자영. '폼생폼사'가 삶의 화두인 새내기 형사 김동욱,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들은 '한 팀으로 사건수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서 '퇴계태격 신경전'은 더해만 간다.

수사 도중 자영과 동욱은 부검을 통해 의문의 일기짜기 캡슐을 발견한다. 더 놀라운 것은 미리 쓰여진 일기에 따라 살인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

죽은 사체가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는 단서에 의해 두 형사는 학교를 찾지만 예고된 살인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진다. 그사이

조카인 준하가 납치되면서 자영은 계속되는 이 사건이 자신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하게 되는데...

'6월의 일기'는 기존의 스릴러 영화와는 사뭇 다르다. '범인'이 아닌 '왜'라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은경, 김윤진, 문정혁이라는 힘 있는 배우들의 시너지가 더해지면서 한국 스릴러 장르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것이 영화평론가들의 중론. 하지만 영화적 재미와 함께 탄탄한 내러티브를 갖춘 스릴러 영화에 목말라 하는 관객들에게 청량음료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공연

희망 염원하는 간절한 몸짓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미륵의 꽃'

전쟁과 테러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무엇이 꽃 피울 것인가. 인천시립무용단의 제56회 정기공연 '미륵의 꽃'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12월 9-1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미륵의 꽃'은 구원불인 미륵부처님을 기다리며 희망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의 간절한 몸짓을 아름다운 선율 속에 펼쳐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는 무대는 여인들의 오채투지 모습에서 시작해, 회고 우울한 비가 번갈아 내리는 2장, 광기 가득한 3장, 만개하지 못한 꽃잎이 떨어지는 아픔을 노래한 4장으로 이어진다. 5장은 정적만이 남은 무대에 울려 퍼지는 바람의 노래가 채운다. 바람에 날아온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까지 고난의 여정은 6-8장에서 섬세한 몸짓으로 표현된다. 9-10장은 험한 세상을 견디고 향내를 풍기는 꽃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032)438-7774



인천시립무용단이 선보일 '미륵의 꽃'.

강지연 기자

전시

전각가 고암 정병례 작품전

수익금 전액 지하철 포교 운영기금 사용 계획

대하드라마 '왕과 비' '대망' 등의 타이틀을 제작했던 전각가 고암 정병례 화백의 전각 작품을 만나자. 정 화백의 작품도 보고 지하철 포교 기금 마련에도 일조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다.

12월 7-13일 서울 법원사 불암미술관, 15-21일 대구 보현사 문화관에서 각각 열리는 '고암 정병례 화백의 불교 전각전시회'에는 전각한 원석 30여 점과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풍경소리 계재 작품 60여점이 선보인다.

지하철 포교단체 '풍경소리'의 재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지하철 포교 운영기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풍경소리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철, 전국 철도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지하철에 포교용 게시판 '풍경소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02)736-5583

강지연 기자



전시회에 선보일 정병례 화백의 작품 모습.

방송 프로그램

5월 14:05 낭만라디오
6월 11:05 아름다운 초대
7월 10:05 BBS선생님살림
8월 09:05 행복한 미소
9월 07:05 아침저널
10월 06:20 오늘은 좋은 날
11월 07:05 사랑의 정경다리

5월 21:10 한국의 명찰
6월 02:40 불교TV스페셜
7월 14:40 명상음악산책
8월 19:30 TV법회
9월 08:20 산중대담
10월 07:30 조선불교탄원사
11월 16:50 디스커버링부처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낭만라디오(12월 8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 고향의 정겨운 입담과 재치로 오후의 나른함을 말끔히 씻어보는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12월 11일 21:10-22:10) 큰스님들의 삶이 숨 쉬는 선(禪) 법문을 들어보는 시간. 불교경전을 대표하는 <법화경> <금강경> 등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상품문의 : (02)2004-8218-9

알마시카 담채 경상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의 가르침을 공부하던 선지식들의 경상(공부상)의 정기를 받아 겨울밤 독서삼매에 빠져보자.

사찰이나 불교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경상은 당(唐)·송(宋) 시대 양식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 졌지만, 우리 민족의 기호와 생활양식에 따라 변화돼 중국의 것에 비해 날렵하고 세련된 미를 보여 준다. 알마시카 담채 경상은 특히 색을 덧칠해 세련미를 더한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가격은 22만 5000원.